

14호

한문연 소식

발행처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주 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

발행일 2026년 6월 발행인 문재원

전 화 051-510-1882 팩 스 051-581-5655

디자인·제작 부산대학교출판문화원 051-510-1932

Contents

01 | 인문

02 | 학술지

03 | 구성원 동정

04 | 신간 소개

05 | 알림

人紋

“ 부산 축제와 부산 공간의 양극화 ”

부산국제영화제는 부산에 대한 태도와 부산 방문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부산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했으며 지역에 대한 자긍심 및 애향심 고취에 기여했다고 평가받는다. 또한 해마다 수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부산불꽃축제는 2010년 중형차 5천 대 수출 규모에 해당하는 1,286억 원의 경제유발 효과를 창출한다고 한다. 부산국제영화제나 부산불꽃축제 등은 거대한 스펙터클로 변모했다. 부산이 세계도시 아젠다를 제시하면서 부산의 축제는 국제화·대규모화되었고, 이 대규모의 국제적 현대축제는 거대한 빌딩들이 들어서는 해운대 바다 그리고 큰 바다를 우람하게 가로지르는 거대한 광안대교를 관망할 수 있는 광안리 바다에 집중되었다.

역설적이게도, 부산의 대규모 지역축제는 바다와 시각·영상의 결합을 통해 부산을 세계도시로 견인해가는 동시에 그 이면에서는 부산을 바다와 바다 외의 공간으로 그리고 다시 특정 바다와 그 외의 바다로 서열화한 후 해운대·광안리 등의 특정 바다를 점유한다. 부산의 지역축제가 점점 더 해양축제를 중심으로 하게 되면서 부산은 해변공간과 그 외 공간으로 구분되어 갔

고, 대규모 국제 해양형 축제와 소규모 지역 해양형 축제가 차지하는 바다가 구별되면서 바다마저도 분리되어 갔다. 2000년대 부산의 지역축제는 부산을 해양과 내륙, 부산의 바다를 관광지 바다와 상대적으로 소외된 바다로 양극화하는 데 기여했다. 올해 급증한 외국 관광객이 방문하는 부산 관광지 역시 해운대와 광안리 등에 집중되고 있다.

세계화와 지역성 사이에서 긴장을 안고 새로운 정체성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은 비단 부산국제영화제같은 대규모 국제 축제에 한정되지 않을 것이다. 민속축제 참여자는 비참여자에 비해 높은 지역 자긍심과 애착도를 갖게 되며 대표적인 지역 축제를 약화시킬 것이 아니라 소외된 지역축제를 성장시켜야 하기에, 특정 국제적 축제가 특정 바다를 독점하지 않아야 하며 이들 축제에서 지역성을 더욱 강조해야 할 것이다. 축제 성격과 공간의 양분화를 극복하는 것은 관광의 매력도를 더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부산 시민의 장소애착을 증진하고 부산의 공간 양극화와 인구 집중화를 완화하는 데 있어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



학술지

『로컬리티 인문학』 35호(4월 30일 발간) 특집논문



특집논문

1. 주기환, 동일성의 글로컬 — 리처(G. Ritzer)의 변증법
2. 강석민, 지역에서 민속/학하기 — 공동체문화 연구의 성과와 가능성
3. 강주현·이진로,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Zepeto) 콘텐츠에 재현되는 부산의 장소성

일반논문

1. 권희주·허재영, 근현대 일본어의 영향력과 법률·행정 분야에서의 한국어 침식과 그 영향
2. 배윤기, 역사 없는 사람들의 세계 — 『파리와 런던의 밑바닥 삶』



구성원 동정

임면

연구소

구분	성명	소속	발령기간	발령일자	비고
운영위원(임명직)	이창희	고고학과	2026.04.16 ~ 2028.04.15.	2026.04.16.	신규
특별연구원	최윤주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26.06.01. ~ 2026.07.31.	2026.06.01.	신규/2026년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A유형
특별연구원	김수용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26.06.01. ~ 2026.06.30.	2026.06.01.	신규/2026년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A유형
특별연구원	박수영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26.06.01. ~ 2026.06.30.	2026.06.01.	신규/2026년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A유형
특별연구원	최병학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26.06.01. ~ 2026.06.30.	2026.06.01.	신규/2026년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A유형
특별연구원	김병수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26.06.01. ~ 2026.06.30.	2026.06.01.	신규/2026년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A유형

『한국민족문화』

구분	성명	소속	발령기간	발령일자	비고
편집위원	오현석	국어교육과	2026.06.01. ~ 2028.05.31.	2026.06.01.	재임명

구성원 동정

저역서·논문

- 김시현, 「‘气’와 ‘기(氣)’ 동형한자어의 한중 의미 대조 연구 감정적 의미를 중심으로」, 『중국언어연구』 124, 2026.06.
- 윤명희, 「매우 복잡미묘한 인공지능 매개된 장소: 이론적 탐색」, 『문화와 사회』 34(1), 2026.04.
- 장혜진, 「존 듀이 윤리학에서 행위(Conduct)의 구조: 도덕적 성장의 내적 변증법을 중심으로」, 『철학연구』 178, 2026.05.
- 지현주 「유학 전통에서 法象과 禮制 원리」, 『동아시아고대학』 82, 2026.06.
- 하진숙, 「칸트 미학에서 천재와 정서의 문제- 미감적 함목적성과 이념의 관계를 중심으로」, 『철학연구』 178, 2026.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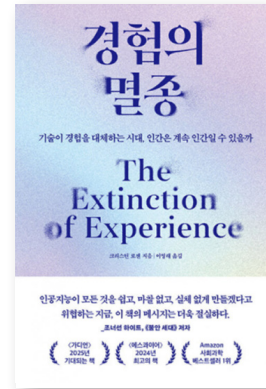
학술대회 발표 및 토론

- 김시현, 2026년도 춘계 국제연합학술대회(AI 시대의 국제중문교육: 기화·도전·미래 방향), “한중 의미 자질 연구의 현황과 전망” 발표(2026.05.16.)
- , 2026년 한국중국언어학회 춘계학술대회(지능의 시대 중국 언어학의 본질과 확장), “‘气’와 ‘기(氣)’의 한중 의미 대조 연구 — 감정적 의미를 중심으로” 발표(2026.05.30.)
- 문재원, 2026년 한국여성학회 춘계학술대회(페미니즘의 지역적 전환), “2000년대 이후 부산·경남 여성문학(문화) 매체의 지형과 실천적 방향” 발표(2026.06.13.)
- , 2026년 한국문화연구학회 학술대회(다중위기 시대 비판(이론)의 임무) 토론(2026.06.20.)
- 윤명희, 2026년 한국문화사회학회 봄학술대회(AI시대의 문화변동과 인간의 재구성), “인공지능 테크노크라시의 형성” 발표(2026.05.15.)
- 이지현, 제13회 영남여성학포럼(지역의 교육생태계에서 페미니즘의 역할), 종합토론(2026.04.17.)
- 장혜진, 제30차 한-중 윤리학 국제학술대회(디지털 시대의 윤리적 도전과 응전), “SDGs 실현을 위한 ‘도덕적 역량’의 정초: ‘단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교육을 위한 윤리적 조건” 발표(2026.05.12.)
- , 2026년 한국윤리교육학회 춘계학술대회(대전환 시대의 윤리학과 윤리교육), “도덕적 역량의 생성 기제로서의 총동-듀이의 행위 이론을 중심으로” 발표(2026.06.12.)

신간 소개

경험의 멸종 - 기술이 경험을 대체하는 시대, 인간은 계속 인간일 수 있을까

크리스틴 로젠 | 이영래 옮김 | 어크로스 | 2025.05.



불과 몇 년 사이, 생성형 AI로 대변되는 새로운 기술문명의 도래로 인간 질서에 균열이 가고 있다. 공들여 구축해 온 인류의 삶-질서가 무력하게 해체되고, 인본주의와 인간 정체성마저 위협받는 처지가 되었다. 문제는 이러한 염려가 지나친 비약에 입각한 비극론이나 음모론이 아니라 당면한 현실이라는 사실이다. 즉, 디지털 기술의 일상화로 물리적 직접 경험이 위축되고 있으며 범용 AI(AGI)와 피지컬 AI 등으로 무한 증식을 예고함으로써 인간의 육체 경험과 함께 감정 경험의 소외마저 가속될 것으로 여겨진다. 경험적 육체성이 소멸되면, 인간의 존재성은 무엇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인가.

인공지능이 인간지능을 대체하는 시대, 크리스틴 로젠의 『경험의 멸종』이 시사하는 바 크다. 저자는 문화비평가이자 역사학자로, 디지털 기술로 인한 전방위적인 변모와 우려를 인간의 직접 경험이 소멸하는 실태를 통해 조명한다. 이는 디지털 기술에 경험을 외주화함으로써 종국에는 인간의 멸종을 추동할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의 산물이다. 주지하듯이 경험은 인류 진화의 표지이자 인류 역사의 증좌이다. 그러나 디지털 기술로 인해 통제·표준화된 경험은 인간 개별성을 삭제하기에 이른다. 아울러 경험의 멸종은 기억의 종말을 현시하기도 한다. 가령 디지털 기술은 죽음마저 부활시킴으로써 망각에 대한 감각을 상실케 하며, 종래 삶의 유한성마저 부정하도록 종용하는 것이다. 망자의 기술적 복원 가능성은 기억-행위를 훼손하고, 그 탓에 죽음은 더 이상 애도되지 않는다. 곧 삶과 죽음에 대한 통각이 약화되고, 시간 개념을 전복함으로써 인간-삶의 현재성을 해체할 것으로 예견된다.

이처럼 기왕의 기술이 인간 감각의 확장에 골몰했다면, 디지털 기술은 이를 대체하고 잠식하는 데 기능한다. 저자는 이러한 디지털 기술의 파괴적인 영향에 착목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디지털 기술은 직접 경

신간 소개

힘과 대면의 수고로움을 덜지만, 사회적 행위와 감정적 성찰마저 아웃 소상하고 있다. 인류는 교류와 접촉을 중단한 채 온전히 정보로 대체된 디지털 감각만을 버림으로써 스스로 단절과 고립을 선택한 것이다. 저자는 디지털 기술이 대체하는 인간 경험의 영역을 광범위하게 조명하고, 경험이 멸종된 시대에 대해 철학적 사유를 개진한다. 무엇보다 저자는 인간 경험의 최종 박탈이 확정적이지 않기에, 지금이야말로 현명하게 '선택'하고 새롭게 '결정'해 나가야 할 때라고 보았다. 즉, 더 늦기 전에 디지털 기술과 감각에 대한 다각적인 성찰을 촉구한다.

자기이론: 자기의 삶으로 작업하기

로런 포니에 | 양효실 외 옮김 | 마티 | 2025.04.



로런 포니에(Lauren Fournier, 1989~)는 캐나다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예술가이자 큐레이터, 연구자이다. 그녀는 자기의 삶과 이론 혹은 철학을 통합하려는 미학적·정치적 실천으로서 자기이론의 역사를 탐구했다. 그녀는 대문자 이론과 철학과 객관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개인적이고 신체적인 경험을 지식/삶의 형식으로 만들어내는 작업을 '자기이론(autotheory)'으로 개념화했다. 포니에의 말을 빌리면, 자기이론은 가부장적이고 식민적인 맥락에 의해 억압되고 짓눌렸으며 지금도 그러한 상태에 있는 자기를 통해, 급진적인 자기-성찰, 신체화된 지식, 줄곧 이어져 온 문학적 논픽션의 정치와 제후한다.

이 책은 글쓰기를 단순히 이미 존재하는 삶을 사후적으로 기술하는 행위가 아니라, 글쓰기라는 실천을 통해 삶을 능동적으로 구성해 나가는 과정으로 규정한다. 자기이론가는 자기 자신을 이론화하는 동시에 이론을 삶의 영역으로 변형시킨다. 이러한 수행적 실천은 정체성의 끊임없는 재구성 과정과 직결된다. 정체성이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수

행을 통해 생성되고, 분해되며, 다시 구성되는 역동적인 대상이기 때문이다. 과거를 회상하고 나르시시즘과 결탁된 회고록과 달리, 자기이론이 현재 진행형으로 자기와 세계의 관계를 이론화하는 '수행적 철학'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나아가 이는 '누가 이론에 접근할 수 있으며, 누가 지식의 정당성을 부여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인식론적 질문을 던짐으로써 지식 생산의 권력 구조에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텍스트 안에서 줄곧 인용하는 매기 넬슨(『아르고호의 선원들』)의 작업- 수행적 인용과 고정되지 않은 삶-쓰기(life-writing)-의 맥락처럼, 포니에는 자기이론을 특정 글쓰기 장르에 가두지 않는다. 대신 이를 오토픽션, 수행적 자문화기술지, 개념미술, 퍼포먼스 등을 가로지르는 간학제적·트랜스미디어적 실천으로 확장한다. 이는 예술과 이론, 삶과 실천 사이에 가로놓인 인위적 이분법을 거부하는 저항적 몸짓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수행적 작업은, 특정 분야, 장르, 정전을 재배치하는 총동, 실천, 생성적인 힘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학계와 문학 공간을 통해 수많은 이론의 움직임을 통치해 온 주인담론보다 훨씬 더 팽창적이고 개방적인 방식으로 자기와 이론 사이에서 새로운 관계를 제안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전 지구적 신자유주의와 포스트-트루스(post-truth) 시대 속에서 자기이론은 단순한 이론적 유희를 넘어 긴급한 정치적 요청으로 다가온다. 무엇보다 이 책은 지식의 추상성을 걷어내고, 이를 각자의 지역적·국지적·특수한 맥락 속으로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라는 실천적 과제를 던져준다. 이러한 포니에의 제언은 제도화된 거대 담론을 넘어, '지금, 여기'라는 구체적인 시공간에서 행해지는 로컬리티(locality)의 발화와 서사에 깊은 방법론적 성찰과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다.



알림

1. 연구소 학술지 『한국민족문화』는 매년 3회(3·7·11월), 『로컬리티 인문학』은 매년 2회(4·10월) 발간됩니다.